

[일반직] 사무 /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합격이야기

인사총무부 최혁진

① 인사말

안녕하세요. 저는 2025년도 대한체육회 일반직(사무)으로 입사한 최혁진입니다. 학창시절부터 여러 스포츠를 즐기며 스포츠가 주는 행복을 피부로 느꼈고,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동기로 대한체육회에 지원하였습니다.

② 서류전형

자격증 배점을 갖추는 것이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컴퓨터활용능력 1급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, KBS한국어능력 2-급, 데이터 분석준전문가(ADsP)를 취득하였습니다.

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그동안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작성하되, 지원직무의 특성과 대한체육회의 핵심가치 및 인재상, 주요 사업 등을 최대한 연관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또한 블라인드 채용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여러 번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.

③ 필기전형

이전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평소에 인터넷 강의나 시중 문제집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며 감각을 유지하였고, 필기시험 일정이 나온 뒤 최소 2회독을 목표로 학습 계획을 편성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. 관련 법률은 일반전공 수험생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.

실전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기하며, 다른 지원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넘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필기시험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.

4 면접전형

대한체육회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,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던 것이 면접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비롯하여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를 스크랩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며, 관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, 실전에서도 면접관 분들의 질문에 일관성 있는 태도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.

PT발표와 영어면접이 면접전형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PT의 경우에는 구조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 면접에서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제시된 경우에도 '현황-문제점-대안-기대효과' 등의 틀을 잡아 둔다면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영어면접은 예상 답변을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로 입으로 말해보는 과정이 주요했습니다. 스터디를 통해 영어로 말하기에 익숙해진다면 실전에서도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5 회사생활

인사총무부에서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.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임직원 분들이 더욱 활기찬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.

6 맺음말

취업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공부하고 경험하며 빈 곳을 채워나가다 보니 합격의 순간이 찾아왔고, 이렇게 합격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

꾸준함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길은 열립니다. 대한체육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